

“2020년 빛낼 쥐띠 스타 ... 내년은 나의 해”

유재석부터 트와이스까지

톡톡 튀는 스타들 많아

◇ 1996년생 K팝 스타들 왕성한 활동 기대

1996년생 중에서는 음악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K팝 가수가 즐비해 내년 활동도 기대를 모은다.

걸그룹 트와이스에는 정연, 모모, 사나 등 쥐띠가 많다. 트와이스는 올해 일본 오리콘 ‘연간 아티스트 토탈 세일즈 랭킹’에서 K팝 가수로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를 차지하고 내년 3월에는 도쿄돔 무대에 서는 등 일본에서 환류 인기를 견인하고 있다. 도쿄돔 무대 이후에는 서울 공연으로 월드투어의 대미를 장식한다.

레드벨벳 조이, 구구단 세정, AOA 찬미, 여자친구 예린, 러블리즈 진, 에이핑크 오하영 등도 1996년생이다.

남자 아이돌 중에서는 워너원 출신으로 솔로 활동 중인 강다니엘과 김재환, 업텐션 출신 이진혁과 김우석, NCT 텐, 갓세븐 영재, 세븐틴 준·호시·윈우·우지, 펜타곤 여원·엔안, SF9 로운·주호, 아스트로 진진 등이 눈길을 끈다.

악뮤(악동뮤지션) 이찬혁, 정승환, 이하이도 1996년생 쥐띠 가수다.

1984년생 저력도 만만치 않다. 엠파, 답포로우, 사이먼 도미닉 등 1984년생 래퍼들 모인 다모임은 한국 힙합 신에서 굼직한 자리를 차지한다. 이들은 최근 힙합 캐럴 ‘아마무’를 음원차트 정상에 올려놓으며 화제를 모았다.

그룹 투에니원 출신 산다라박과 박봄도 1984년생 동갑내기다.

1972년생 쥐띠 가수에서는 서태지가 대표적이다. 그는 새로운 앨범을 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포크 음악 선구자들인 현대수와 김세환은 1948년생이다.



유재석



염정아



레드벨벳 조이



구구단 세정



정연·모모·사나 등 쥐띠가 많은 걸그룹 ‘트와이스’

◇ ‘국민MC’ 유재석...장동건·배용준·신민아 등 배우들도

방송가에서 영리함과 생존력을 겸비한 대표적인 쥐띠 스타는 국민MC, 영원한 ‘유노님’ 유재석(47)이다.

지난해 13년을 이끈 MBC TV 간판 예능 ‘무한도전’ 중역으로 전성기가 끝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았던 유재석은 올해 또 한 번 김태호 PD와 ‘유산슬 신드롬’을 불러일으키며 견제함을 과시했다.

연말 MBC 연예대상 수상도 점쳐지는 가운데 내년에는 또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를 선보일지 기대를 모은다. 그러는 가운데 유재석은 내년 10주년을 앞둔 SBS

TV ‘런닝맨’으로 올해 SBS 연예대상 주인공이 돼 눈길을 끌었다.

이외에도 예능인 중 김원희, 정성희, 이휘재 등이 쥐띠 방송인으로 꼽힌다.

배우 중에도 유재석과 같은 1972년생으로 오랜 기간 톱자리를 지킨 스타가 많다.

꽃미남의 표본인 장동건과 그의 부인 고소영을 비롯해 ‘영원한 온사마’ 배용준, 연기파 김명민, 김상경, 염정아, 심은하, 박주미, 이아현 등이 모두 동갑내기다.

한창 안방극장에서 활약 중인 1984년생 배우들로는 최근 JTBC ‘보좌관’에

서 이미지 변신에 성공한 신민아와 걸크러시 이미지로 사랑받는 이청아, 인공진과 알콩달콩한 일상을 보여주는 소이현 그리고 서지혜, 윤은혜, 구혜선, 남상미, 박한별 등이 있다.

환갑을 맞는 1960년생 쥐띠 스타로는 배우 이미숙, 원미경, 정애리, 송옥숙, 천호진, 이휘향, 강신일, 이경영, 차화연 등이 있으며 예능인 중에서는 이경규도 속한다.

이보다 위, ‘원로급’인 1948년생 배우로는 최찬숙, 박혜숙, 김병기, 정상철 등이 있으며 이 중에서는 여전히 활발히 활동 중인 인물도 꽤 있다. /연합뉴스



배우 이완-프로골퍼 이보미 결혼사진 공개

배우 김태희의 동생이자 연기자로 활동하는 이완(본명 김형수·35)과 프로골퍼 이보미(31)의 결혼식 장면이 공개됐다.

이완 소속사 스토리제이컴퍼니는 두 사람이 전날 예식을 잘 마무리했다며 관련 사진을 29일 공개했다. 두 사람은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연합뉴스

‘1박2일’의 향수 ... ‘신서유기7’ 5.9%로 마무리

나영석 PD의 ‘신서유기7’이 영화 캐릭터 분장으로 시즌을 마무리했다. (사진)

28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밤 9시 10분 tvN에서 방송한 ‘신서유기7’ 시청률은 5.9%(유료 가구)로 집계됐다.

전날 방송에선 강호동, 이수근, 은지원, 규현, 송민호, 피오 등 멤버들이 영화 속 캐릭터 분장쇼로 시즌 엔딩을 장식했다.

어느덧 7번째 시즌을 맞은 이완 ‘신서유기7’은 ‘홈캠’이라는 부제를 붙이며 역대 시즌 최초로 국내로 향했다.

이런 이유로 이번 시즌은 ‘1박2일’의 향수가 물씬 묻어나오는 시리즈였다. 나영석 PD와 강호동, 이수근, 은지원 등 기존 ‘1박2일’ 멤버들이 목격지에서 게임에 열중하는 모습은 ‘1박2일’의 웃음을 다시금 떠올리게 해 충분했다.

다만 시즌을 거듭하면서 익숙한 패턴이 관찰되고 웃음의 역치가 높아지는 것은 ‘신서유기’ 시리즈에 안겨진 큰 숙제다. ‘신서유기7’은 다음 달 3일 감독판을



마지막으로 종영하며, 후속으로는 나영석-장은정 PD가 연출하는 쇼트 폼(short-form) 유니버스 예능 ‘금요일 금요일 밤에’가 방송된다.

같은 날 비슷한 시간대에 방송한 KBS 2TV ‘가요대축제’는 6.4%~6.0%~5.9%로 나타났다. MBC TV ‘공부가 머니?’는 2.3%~2.3%, ‘나 혼자 산다’는 8.0%~10.5%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3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 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나쁜사람	35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닥터 365 35 잘 보실래요
[9]	30 KBS 뉴스	00 꽃길만 걸어요(재) 40 무한리플 샐러드	30 930 MBC 뉴스 55 중계방송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10 좋은아침
[10]	00 중계방송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40 지구촌 뉴스		00 중계방송 추미애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11]		00 살림하는 남자들(재)		
[12]	00 KBS 뉴스 12	05 제보자들(재)	00 12 MBC 뉴스 20 전국시대(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토크쇼-교육청 시리즈 55 kbc 2019 연중특별기획 2030 미래리포트 특집토론
[1]	00 네트워크기획 문화산책 50 KBS 재난방송센터(재)	1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헬로킴지 동물교실 2 50 중계방송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 10 연중기획 -빛고을행복아카데미			00 뉴스브리핑
[3]	10 전라도 매력청(재)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50 뽀뽀뽀 모두야 놀자	
[4]	00 사사건건	00 무한리플 샐러드(재)	20 나쁜사람(재)	00 합창으로 떠나는 음악 여행 -GFN 광주영아방송 소년소녀 합창단 정기공연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00 영화가 좋다(재)	00 5 MBC 뉴스 25 생생 월드인류 스페셜	00 SBS 오뉴스 45 KBC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5 오매 전라도	00 순간포착 세상을 이룬일이(재)
[7]	00 KBS 뉴스 7 40 우리말 겨루기	50 우아한 모녀	30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시사타지! 따따부따(재)
[8]	30 꽃길만 걸어요	30 글로벌24 55 송년특집 코미디의 전당	55 2019 MBC 연기대상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 9			
[10]	00 가요무대	00 개는 훌륭하다		00 낭만더더 김사부 그 후 3년
[11]	00 더 라이브 40 2019 KBS 영상실록(재)	20 한국영화 100년 더 클래식 (와이키기 브라더스)		
[12]	30 KBS 뉴스 40 생이웃집 찰스		00 양코리 송가인 콘서트 가인이어라	20 나이트 라인 50 양코리 고향견문록 스페셜

EBS1

07:00 로보카 폴리	13:00 EBS 다크프라임	18:00 꾸러기 천사들
07:30 뽀뽀뽀 뽀로로	13:55 공개수업 탐(探)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18:30 최고다! 호기심 딱지
07:45 페파 피그	14:45 물랑	19:00 스파이더맨
08:00 당동영 유치원	14:55 꼬마버스 타요(재)	19:30 생방송 판다다
08:30 애코와 친구들	15:10 로보카 폴리(재)	20:00 머털도사
08:45 최고다! 호기심딱지	15:25 제로니모 스틸턴의 모험	20:30 아용명명 귀여워2
09:00 엄마 까투리	15:55 엄마 까투리(재)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기차길 옆 동남아-순수 시대 감보디아>
09:30 원더볼즈	16:10 최고다! 호기심딱지(재)	21:30 한국기행 <겨울, 참 오지다 1부 찬 바람 불면 갯벌이 간다>
10:00 지식의 기쁨	16:25 페파 피그(재)	21:50 EBS 다크프라임
10:30 한국기행(재)	16:40 당동영 친구들-장난감나라의 비밀	22:45 다문화 고부 열전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00 EBS 뉴스	23:35 별이 없이 산다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20 그림을 그려요	
12:00 EBS 정오뉴스	17:30 애코와 친구들(재)	
12:10 다문화 고부 열전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30일 (음 12월 5일 辛丑)

<p>36년생 안에서 조용하지만 밖으로 나가면 시끄러워진다. 48년생 한 곳에만 제대로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60년생 출발 상황이 발생한다. 72년생 귀인을 만나거나 귀물을 접할 수도 있는 날이다. 84년생 상대의 뜻을 최대한 존중함이 순조롭다. 96년생 견주어 본다면 한 눈에 쉽게 드러나리라. 행운의 숫자 : 87, 31</p>	<p>30년생 표현 방법에 따라서 실력의 차이가 크다. 42년생 듣기에 좋아서 쉽게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54년생 급변하고 있으니 신중하게 대처하라. 66년생 설에 반쯤이 없어 진행이 원활해질 것이다. 78년생 무가치하다면 의미를 부여할 이유가 없으니라. 90년생 제한을 받게 되어 상당히 갑갑할 수도 있으니라. 행운의 숫자 : 57, 35</p>
<p>37년생 앞서 가려 한다면 오히려 약화 되리라. 49년생 마음 먹은 대로 행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 61년생 실수를 두려워하다가 아무것도 못 하는 법이다. 73년생 향방을 좌우할 것이니 현명한 취사선택이 절실한 때이다. 85년생 세상에 갇힌 새가 구름을 그리워하는 격이다. 97년생 변화하는 상황까지 감응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20, 04</p>	<p>31년생 모든 인맥을 총동원하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할 때가 되었다. 43년생 난제가 생겨나고 있지만 슬기를 모은다면 관철된다. 55년생 목적 달성을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흐름이다. 67년생 구상만 잘 한다면 충분히 피해갈 수 있다. 79년생 파격적인 것만이 제대로 역할을 할 것이다. 91년생 적극적이어야만 한다. 행운의 숫자 : 62, 15</p>
<p>38년생 가깝게 남겨도 될 일이다. 50년생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법이다. 62년생 마음을 놓은 데서 실수가 비롯되는 법이다. 74년생 객관적이지 못하다면 무의미 하니라. 86년생 실증이 난다고 해서 미룬다거나 바꾸어서는 아니 된다. 98년생 난제에 봉착하여 불편하겠다. 행운의 숫자 : 23, 45</p>	<p>32년생 성사의 기미를 띠고 있는 판세이다. 44년생 추진하는 방향과 현상이 정비례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라. 56년생 기준과 신규 간에 균형과 조화가 절실하다. 68년생 다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자. 80년생 가까스로 안도의 한숨을 쉬리라. 92년생 보이지 않으면서도 작용하고 있는 것의 영향력이 대단하다. 행운의 숫자 : 36, 71</p>
<p>39년생 무의미 했던 것이 새로운 가치를 얻게 되리라. 51년생 계기가 이뤄지지 않아서 중국적으로 연결되지 못한다. 63년생 더 할 수 없이 경사스런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라. 75년생 아주 기쁜 일이 생기는 구도이다. 87년생 숨은 뜻을 이해해야만 풀이 나갈 수 있다. 99년생 참신한 발상은 성공을 이끌기에 충분하다. 행운의 숫자 : 48, 68</p>	<p>33년생 임기응변에 능해야 한다. 45년생 대처 위 초목은 폭풍우 맞고 강해지는 법이다. 57년생 본분을 잊어버린다면 곤혹스러움에 처하게 된다. 69년생 들여다보고만 있지 말고 결단을 내릴 때이다. 81년생 무의미한 정황의 반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일 뿐이다. 93년생 근면과 검소 속에서 복이 피어나리라. 행운의 숫자 : 56, 19</p>
<p>40년생 소용없는 일이니 내버려 두라. 52년생 겉보기보다는 내실을 기해야 한다. 64년생 제 몫을 확실히 해낼 것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76년생 가다부터 잡아나가는 것이 실용적이다. 88년생 형식도 중시해야 할 때가 되었다. 00년생 오늘 일을 미룬다면 쉽게 손에 잡지 않은 채 관심 밖에 있다가 흥조를 날을 가능성이 높다. 행운의 숫자 : 17, 28</p>	<p>34년생 힘들더라도 끝까지 참아내야만 하니라. 46년생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제스처와 채널이 절실할 필요하다. 58년생 지나치다면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리라. 70년생 시기의 선택이 승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82년생 보다 큰 행보로 임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94년생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아니 되느니라. 행운의 숫자 : 55, 81</p>
<p>41년생 일사천일 현상일 뿐이니 절대성을 부여하지 마라. 53년생 전혀 미련을 둘 필요가 없다. 65년생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니라. 77년생 답답하다라도 잠자코 지켜보고 있어야 할 판세이다. 89년생 겉과 속이 팍한 상태이니 지금 바로 수확을 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이니라. 01년생 안정 궤도에 진입하라. 행운의 숫자 : 34, 88</p>	<p>35년생 파격적인 조건일 것이다. 47년생 불완전하다면 백 번이고 다시 하는 것이 당연하다. 59년생 참으로 신중하지 않다면 후회하게 될 것이다. 71년생 사소한 원인으로 차치하지 마라. 83년생 실수로 인한 누락이나 흠결의 피해가 클 수도 있는 날이니 주의하라. 95년생 기대치에는 못 미치더라도 관참은 편이다. 행운의 숫자 : 33, 07</p>